

부안군, 올해 문화재 지정건수 4건

직소폭포·최광지 흥패 등 지정 예고...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국가보물 지정 추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올 들어 벌써 문화재 지정건수가 4건에 달해 자연·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가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부안 직소폭포 일원', 국가보물로 지정 예고된 '최광지 흥패', 전북도기념물로 지정 예고된 '부안 점방산 불수', 전북도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가야금 병창' 등 4건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한해에 문화재가 4건이나 지정된 사례는 전국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며 지정 예고된 문화재가 모두 지정되면 부안군 문화재 지정건수가 60건을 돌파(현재 58종 388점)해 62건이 된다.

특히 올해 지정 예고된 4건 외에도 '내소사 설선당과 요사' 국가보물 지정 추진, '부안 숲섬 일원' 전북도기념물 지정 추진, '주류성(우금산성)' 국가사적 추진 등 부안의 자연·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군은 문화재 지정과 함께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해 국가 및 전북도의 지속적인 예산요청을 통해 약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신속하게 집행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 할 예정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부안군 문화재 지정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유산이 많은 풍요로운 고장이라는 반증"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부안의 문화자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올 들어 벌써 문화재 지정건수가 4건에 달해 자연·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국가명승으로 지정 예고된 '부안 직소폭포' 사진.

최근에는 부안의 청자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부안-강진-해남 세계 지사체가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나아가 갈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문체부, 문예위원 선임 절차 재개

"성별·연령 적극 고려"

지난해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중단됐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임 절차가 재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7기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이날부터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후보자 모집 분야는 문학·미술·연극·전통예술·문화일반 분야 등 5개 분야이며 총 8명이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년이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는 일을 맡고 있는 문예위는 사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선임 절차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18일 20명으로 이뤄진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천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원서에 대한 서류와 인터뷰 심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1월 위원들의 임기 만

료에 따른 것으로 같은 해 9월부터 추진하던 중단됐던 선임 절차를 재개하는 과정이다. 당시 후보자 16명을 선정하는 과정과 관련해 전원 남성만 포함된 성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균 나이 역시 56.1세로 세대별 균형도 무시했다는 지적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문체부는 선임 절차를 중단한 데 이어 올해부터 현장 의견 수렴과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 선임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했다. 특히 이번 추천에는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의 균형·대표성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공모 결과는 다음달 중 문체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후보자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공모기간을 14일간으로 정했다. 기존 서류 심사와 함께 인터뷰 심사까지 진행해 역량 있는 후보자를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며 "특히 그간 상대적으로 접수가 저조했던 여성, 30~40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뉴시스

익산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선정

익산문화원(원장 이재호)이 2020어르신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르신 문화예술 교육'과 '찾아가는 문화로 청춘사업'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어르신의 문화향유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익산문화원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는 시기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타하나 동전 한잎 뿐!(포크기타 교육)'과 '칙!칙!폭!폭! 달려라! 청춘열차!(버스킹 공연)'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재호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하루빨리 안정화 되어서 모든 국민들의 삶이 정상화되고 주체적인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문화원은 2019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익산역광장, 중앙시장, 문화예술의거리 등에서 버스킹 공연을 실시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이영도 판타지소설가, 오디오북 출간

코로나19 여파로 문화활동 제약된 독자 위해 파격가 공급

한국 대표적 판타지 문학 작가의 오디오북(소리책)을 파격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게 됐다.

황금가지 출판사는 '드래곤 라자', '눈물을 마시는 새' 등으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판타지소설가 이영도 작가의 '오버 더 시리즈' 세 권의 소설이 오디오북으로 출간됐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영도 작가의 '오버 더 호라이즌'과 '오버 더 미스트', '오버 더 네블러' 등 세 권은 보안관 보 티르 스트라이크가 주인공인 작품이다. 2018년 발표된 '오버 더 초이스'까지 시리즈 도합 20만부 이상 판매고를 올린 판타지 연작 소설이다.

'오버 더 초이스'의 경우 2018년 오디오북 출시 당시 사상 최대 제작비와 'BBC 설'의 흥즈역 장민혁 등 인기 성우 11인이 참여해,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오버 더 초이스' 오디오북은 20시간에 이르는 최장

시간 러닝타임에도 1만1000카피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이번에 발표된 오디오북도 '오버 더 초이스'와 마찬가지로 책 전체 텍스트의 낭독과 배경음악과 효과음, 성우의 연기가 더해졌다. 이를 통해 독서 효과와 드라마를 보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신작 오디오북 세 편은 당초 오는 7월 출간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문화 활동이 제약된 독자들을 위해 네이버 오디오클럽으로 출시를 앞당겼다.

판매금액도 편당 5000원으로 낮게 책정했고 7일간 대여하기로 90% 할인기간 500원에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황금가지는 코로나19 여파에 하지는 작가의 대표작 '얼음나무 숲' 오디오북도 90% 할인 대여를 함께 진행한다.

/뉴시스

美 오디오북 수상작 20권 국내 독점 출시

스토리텔, '오디 어워즈' 서 수상한 콘텐츠 국내 처음으로 공개

글로벌 오디오북 스트리밍 플랫폼 스토리텔이 미국 오디오북 시상식 '오디 어워즈(Audie Awards)'에서 수상한 오디오북 콘텐츠 20권을 스트리밍 서비스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독점 공개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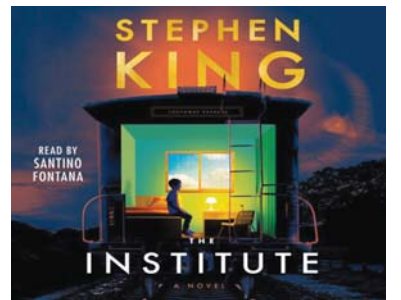
오디 어워즈는 미국 오디오북 협회가 매년 뉴욕에서 개최하는 권위 있는 영미권 오디오북 대상 시상식이다. 지난 2월에 열린 제25회 오디 어워즈에서는 ▲올해의 오디오북(Audiobook of the Year) ▲오디오 드라마(Audio Drama) ▲자서전/회고록 등 총 24개 부문에서 시상이 이뤄졌다.

이중 올해의 오디오북 부문을 수상한 개럿 그래프(Garrett M. Graff)의 '온리 플레인 인 더 스카이(The Only Plane In the Sky: An Oral History of 9/11)', 스티븐 킹의 '오디 어워즈'를 포함한 수상작 및 후보작 영어 오디오북을 스토리텔에서 국내 독점으로 취할 수 있다.

2020년 올해의 오디오북으로 선정된 '온리 플레인 인 더 스카이'는 미국 유명 저널리스트인 개럿 그래프가 9·11테러를 눈앞에서 겪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아 엮은 구전 작품이다.

작가를 포함한 45명의 목소리로 녹음된 이 오디오북은 생동감 있는 증언과 감동으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바 있다.

또다른 수상작 '더 인스티튜트'는 공포물의 거장이라 불리는 스티븐 킹의 신작으로, 영화



로도 제작된 그의 대표 소설 '그것(It)'을 잇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뉴욕타임스가 발표한 '2019년 주목해야 할 도서 100선'에 선정됐다.

스토리텔 한국지사 박세경 지사장은 "스토리텔에서는 해외 유명 영어권 오디오북을 물론 국내 주요 베스트셀러 오디오북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며 "영어권으로 직접 들으며 영어 공부는 물론 글로벌 정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스토리텔은 북유럽 오디오북 업계를 선도하는 오디오북 플랫폼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한국어·영어 완독형 오디오북 5만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모든 오디오북 콘텐츠는 월정액 1만1900원으로 무제한 스트리밍 가능하며, iOS 및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에 오프라인 모드로 저장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뉴시스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